

# 대학생의 정신건강 예측구조모형

전미경\*, 오경옥\*\*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 Prediction Structure Model of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Mi-Kyung Jeon\*, Oh-Kyong Ok\*\*

Dept. of Nursing, Munkyeo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고 통합적인 모형 구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횡단적 조사연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정신건강관련 특성은 SPSS 20.0 프로그램을, 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검증은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614.90(p=.000)$ , Q값 =3.5, GFI=.88, AGFI=.84, NFI=.92, NNFI=.94, CFI=.94, RMR=.02, RMSEA=.08 적합도를 나타내어 연구모형이 가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정신건강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 방안과 자아 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자아존중감 증진,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학교현장 및 정신보건 실무에 활용하는 중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대학생, 정신건강, 생태학적 체계이론, 미시체계, 구조모형

**Abstract**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factors that affect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establishes an effective approach to integrating model building, mental health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based on the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 theory. The study method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The SPSS 20.0 program was us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The fitness of the model was verified and the Amos 20.0 program was used for hypothesis verification. In the study, the fit index of the model was  $\chi^2 = 614.90$  ( $p = .000$ ), Q value = 3.5, GFI = .88, AGFI = .84, NFI = .92, NNFI = .94, CFI = .94, and RMSEA = .08,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stress was the most influential on mental health, and that stress coping strategies, self - esteem and parenting attitude affect mental health.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intervention should be carried out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stress management, self - esteem, and coping with stres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Mental Health, Ecological Systems Theory, Microsystem, Structure Model

\* 본 논문은 제 1저자 전미경의 박사학위논문 축약본임.

Received 2 January 2017,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Oh Kyong Ok  
(Dep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jeonmk4311@nate.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정신건강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정신적인 안녕상태로 [1],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삶을 즐기며, 대인관계에 만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태도로 자신을 표현한다.

정신건강은 모든 발달단계에서 중요하지만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 초기에 걸쳐 있는 시기이며, 성인기로 가는 마지막 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은 다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학업의 성취, 사회생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 향후 성인기의 준비로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국내의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실시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2], 대학생에 해당하는 20대 청년층의 경우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는 63.3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자아실현, 자율성과 독립,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이 크며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성인기에 진단되는 정신장애의 상당수가 이미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부터 시작되므로 이 시기의 정신건강은 성공적인 과업 성취와 성인기의 가정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4].

대학생은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단계이며, 대학생활에서의 미래를 위한 준비, 다양한 대인관계 갈등, 새로운 가족 형성 준비, 가치와 신념 등 갑작스런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환경적 영향이 그 어느 단계보다도 많으며,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완전하게 조절하거나 통제하기에는 부족하여 대학생의 정신적 장애 및 문제 행동 등을 유발하므로 다른 발달 단계 보다도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5,6]. 이러한 환경적 변화과정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직업이 42.1%, 학업은 16.7% [2] 로 나타나 청소년기와는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경제적 독립 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요구되고 있어 어느 시기보다도 정신건강을 위협받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에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다고 하였으며, 특히 사회와 문화적인 요소는 어떤 행동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므로 다른 요소보다도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7].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인간과 사회문화적 환경체계의 맥락에서의 설명한 Bronfenbrenner [8]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하면, 인간발달은 인간이 근접한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그가 살고 있는 인접 환경 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인접한 환경들을 포함하는 크고 다양한 환경 간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영향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며, 적극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존재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에 근접하여 가장 영향을 주는 환경을 미시체계라고 하였다.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의 특성,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적응, 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모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요인과 개인체계 요인을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모형을 구축하며,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과 간호중재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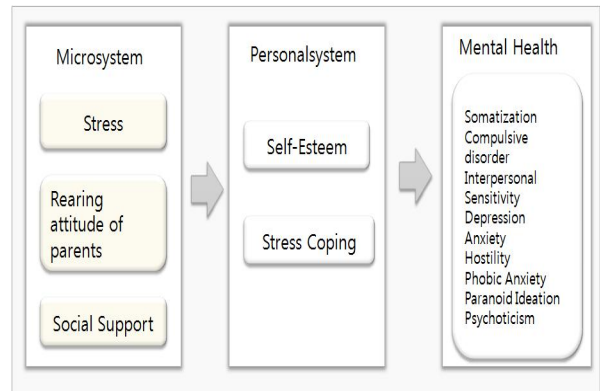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Bronfenbrenner [8]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경로를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며,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예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예측 구조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근거로 하였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인간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생태학적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다섯 가지 체계로 나누었다. 이들은 인간을 둘러싼 직접적 환경으로부터 인간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미시체계(Microsystem)는 발달하는 인간이 직접 접촉하는 물리적·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인간이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부모, 친구, 교사, 이웃과 같은 환경을 말하며, 중간체계(Mesosystem)는 직접 참여하거나 관계를 맺는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 즉, 직접적 환경들 간의 관계로 가정에서의 경험과 학교경험의 관계, 가정생활과 친구와의 관계, 형제관계 등 미시체계들과의 관계성 또는 맥락간의 연결을 의미한다. 중간체계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환경에서 역할 수행을 관찰하는 것으로 인간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외체계(Exo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근접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이며, 거시체계(Macrosystem)는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으로 사회의 문화, 신념체계, 가치관과 같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상위 체계를 말하며, 시간체계(Chronosystem)는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즉, 다섯 가지 체계는 인간발달에 가족과 외적인 환경을 포함하여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환경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8].

이러한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가장 근접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요인 중 선행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를 세 개의 미시체계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개인체계 요인은 개인의 행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선행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대처를 개인체계 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Fig. 1].



[Fig.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Bronfenbrenner [8]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토대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총체적 인과관계구조를 구축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관계모형을 알아보고자 하는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표본의 대표성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에 의한 대학교의 선정과 각 대학별 전공계열에 따라 비례 층화 할당 표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례 층화 할당 표집법은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 가장 정교하며, 선택하고자 하는 대학의 집단별 분포, 다양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단 내에서 배분된 수만큼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세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는 학생
-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 4) 현재 정신의학적 진단을 받은 학생 및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 2.3 연구도구

#### 2.3.1 정신건강

정신건강 수준 측정도구는 Drogatis(1973)가 Hopkins Check List를 발전시켜 만든 Symptom Check List-90(SCL-90)을 Kim [9] 등이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를 Lee [10]가 다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제작한 축소판 47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88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를 보였다.

### 2.1.2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Jeon [11] 등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50문항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에는 친구와의 관계 5문항, 이성과의 문제 6문항, 교수와의 관계 6문항, 가족과의 관계 6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면과제 스트레스 요인에는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 문제 5문항, 학업문제 7문항이 포함되어,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1] 등의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alpha = .75 \sim .88$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4$ 이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alpha = .75 \sim .90$ 를 보였다.

### 2.1.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Oh & Lee [12]가 개발하고 Lim [13]이 청소년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로 총 40문항, 4개의 요인으로 각 요인별 10문항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은 부·모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양극화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 문항은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서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Lim [13]의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sim .81$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4$ 이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alpha = .78 \sim .87$ 을 보였다.

### 2.1.4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Nolten [14]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중 Kim [15]이 사용한 도구에서 교수 지지, 친구 지지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사회적 지지는 총 18 문항으로 각 하위요인 별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 [15]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은 cronbach's  $\alpha = .91 \sim .86$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영역은 cronbach's  $\alpha = .93 \sim .93$ 을 보였다.

### 2.1.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6]가 개발하고 Jeon [17]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여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이 도구는 10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5문항과 부정적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총 40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7]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를 보였다.

### 2.1.6 스트레스대처

스트레스 대처방식 도구는 Folkman과 Lazarus [18]가 개발한 69개 문항으로 이루어 스트레스 대처방식 도구를 토대로 Kim [19]이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서 만든 총 6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 중심적, 사회적 지지 추구로, 소극적 대처는 소망적사고, 정서적 대처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처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 대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8$ , 하위 요인의 cronbach's  $\alpha = .87 \sim .95$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 하위 요인의 cronbach's  $\alpha = .77 \sim .93$ 를 보였다.

## 2.4 자료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었다.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D시 소재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제2-1046881-A-N-01호-201504-HR-016-02-03).

본 연구자는 먼저 대상 학교의 각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응답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기록한 설명서와 동의서에 서면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도구의 사용에 대한 승낙은 연구도구 사용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연구도구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이메일 등을 통해 사용 승낙을 받았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68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수거율은 97.5%이었으며 응답 오류 설문지를 제외한 42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2.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과 Amos 20.0 Program의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4) 측정 도구의 신뢰도인 내적일관성 측정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 5)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주요 영향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공분산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 6)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평가는  $\chi^2$  통계량,  $\chi^2$  통계량/자유도(df), 적합도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표준적합치(NFI), 비표준적합치(NNFI), 개량오차평균의 제곱근(RMSEA), 평균제곱잔차제곱근(RMR), 비교부합지수(CFI)를 이용하였으며, 효과계수의 크기와 t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7)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성별)을 통제 한 후, 예측 변수의 효과계수의 크기와 t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남자 245명(57.8%), 여자 179명(42.2%)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195명(46.0%), 종교는 없음이 215명(50.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동거 가족의 경우 부모 함께는 357명(84.2%), 부 24명(5.7%), 모 32명(7.5%)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은 고졸이 부 222명(52.4%), 모 271명(63.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득은 101-300만원이 192명(45.3%)으로 많았으며, 부모의 직업에서 부는 서비스직 85명(20.0%), 모는 전업주부 121명(28.5%)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은 한 달에 1-2회가 157명(37.0%)로 많았으며,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에서 신체건강은 231명(54.5%)가, 정신건강은 229명(54.0)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에서 부와 대화시간은 10분~30분이 123명(29.0%), 모와의 대화시간은 1시간 이상이 170명(4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3-5명이 152명(36.5%)으로 가장 많으며 교수와 한 학기에 상담 또는 면담을 위한 접촉빈도에서 없음이 127명(30.0%), 1회는 125명(29.5%)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Mental Heal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24)

Variables	Categories	Mental Health	t / F	p
		M±SD		
Gender	Male	0.49±0.53	-3.77	.000***
	Female	0.69±0.53		
Birth order	First	0.55±0.54	.62	.602
	Second	0.60±0.53		
	Third or more	0.53±0.50		
	Reader	0.69±0.69		
Religion	Buddhism	0.53±0.46	.30	.877
	Protestant	0.57±0.52		
	Catholic	0.65±0.53		
	None	0.58±0.58		
	Other	0.54±0.45		

Variables	Categories	Mental Health M±SD	t / F	p
Family member	Parents	0.56±0.53	.36	.784
	Father	0.58±0.56		
	Mother	0.64±0.58		
Father Education	Other	0.68±0.67		
	≤High school graduation	0.57±0.54	.79	.502
	Middle school graduation	0.56±0.54		
Mother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0.61±0.57		
	≤High school graduation	0.78±0.52		
	Middle school graduation	0.58±0.58	.82	.483
Income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0.55±0.51		
	≥one million won	0.69±0.58		
	1~3 million won	0.64±0.67	2.58	.053
Father Occupation	1~3 million won	0.77±0.65		
	3~5 million won	0.62±0.57		
	5 million won or more	0.49±0.48		
Mother Occupation	Professional	0.56±0.52	1.24	.287
	Managerial class	0.52±0.55		
	office job	0.60±0.58		
	Service jobs	0.50±0.53		
	Production technicians	0.56±0.51		
	Housewife	0.52±0.46		
	Other	0.59±0.68		
Leisure activities	Professional	0.71±0.60		
	Managerial class	0.41±0.34	.84	.538
	office job	0.65±0.51		
	Service jobs	0.65±0.51		
	Production technicians	0.59±0.57		
	Housewife	0.55±0.57		
	Other	0.64±0.55		
Physical Health	None	0.56±0.52	2.93	.033*
	2 times a month	0.75±0.57		
	1 ~ 2 times a week	0.54±0.51		
Mental health	More than 3 times a week	0.55±0.55		
	Not healthy at all that	0.52±0.54	12.80	.001**
	Unprosperousness	1.18±0.91		
Quality time with Father	Good health	0.92±0.68		
	excellent	0.59±0.49		
	Not healthy at all that	0.32±0.37	30.43	.000***
Quality time with Mother	Unprosperousness	1.43±0.77		
	Good health	1.13±0.59		
	excellent	0.59±0.49		
Friend number	Not nearly	0.29±0.34	4.36	.002**
	Less than 10 minutes	0.76±0.66		
	10~30 minutes	0.75±0.56		
Professor counseling	30 minutes to an hour.	0.53±0.56		
	1 hour or more	0.50±0.49		
	Not nearly	0.50±0.47	2.62	.035*
Friend number	Less than 10 minutes	0.71±0.62		
	10~30 minutes	0.74±0.54		
	30 minutes to an hour.	0.62±0.58		
Professor counseling	1 hour or more	0.58±0.54		
	None	0.48±0.49	8.63	.000***
	1-2 people	0.95±0.73		
Professor counseling	3-5 people	0.73±0.62		
	More than 5 people	0.56±0.53		
	None	0.39±0.36	.91	.460
Professor counseling	One-time	0.55±0.52		
	Two-time	0.53±0.51		
	3rd time	0.64±0.57		
Professor counseling	More than 4 times	0.54±0.58		
	None	0.67±0.58		

### 3.2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으로 표준선형 모형이나 공변형의 관계구조를 판정하려면 자료의 정규분포의 가정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왜도가 절대값 2미만, 첨도는 7미만이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자료의 분포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는 2.0보다 적어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수의 점수에서 스트레스의 평균은 3점 만점에 .48±.36로 나타났으며, 당면과제 스트레스(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가 .78±.32로, 대인관계 스트레스(이성과의 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교수와의 관계) .39±.31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3.65±.58로 나타났으며, 애정-적대 3.75±.70, 자율-통제 3.57±.59, 성취-비성취 3.53±.61, 합리-비합리 3.77±.66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는 4점 만점에 3.15±.42로 나타났으며, 교수 지지는 3.02±.52, 친구 지지는 3.17±.48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86±.46, 스트레스 대처는 4점 만점에 2.50±.45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는 2.51±.50, 소극적 대처는 2.48±.45로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4점 만점에 평균 .57±.54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에서는 우울이 .85±.7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박증 .77±.67, 신체화 .66±.67, 대인예민증 .63±.61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불안 .54±.62, 적대 .45±.57, 공포불안 .34±.51, 편집증 .40±.57, 정신증 .50±.65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Table 2>Descriptive statistics of Mental Health (n=424)

Variables	Min	Max	M±SD	Skewness	Kurtosis
Stress	0.00	2.00	.48±.36	1.03	1.31
Stress-Challenges facing	0.00	1.50	.78±.32	-.58	.12
Stress-Interpersonal relationship	0.00	1.41	.39±.31	.54	-.21
Rearing attitude of parents	1.64	4.93	3.65±.58	-.15	-.15
love-hostility	1.00	5.00	3.75±.70	-.41	.37
autonomy-control	1.60	5.00	3.57±.59	.00	-.20
achievement-nonachievement	1.50	5.00	3.53±.61	-.10	.15

rational-irrational	1.55	5.00	3.77 ± .66	-.17	-.49
Social Support	1.56	4.00	3.15 ± .42	-.02	.80
Prof. support	1.00	4.00	3.02 ± .52	-.21	1.25
Friend support	1.00	4.00	3.17 ± .48	-.26	1.87
Self-Esteem	1.30	4.00	2.86 ± .46	.51	.15
Stress Coping	1.18	4.00	2.50 ± .45	.16	.73
Active coping	1.10	4.00	2.51 ± .50	.09	.27
Passive coping	1.21	4.00	2.48 ± .45	.21	.77
Mental Health	0.00	2.84	.57 ± .54	1.29	1.39
Somatization	0.00	3.33	.66 ± .67	1.29	1.61
Compulsive disorder	0.00	3.20	.77 ± .67	.85	.26
Interpersonal Sensitivity	0.00	3.00	.63 ± .61	1.23	1.15
Depression	0.00	3.60	.85 ± .77	1.05	.73
Anxiety	0.00	3.80	.54 ± .62	1.45	2.38
Hostility	0.00	3.00	.45 ± .57	1.72	3.01
Phobic Anxiety	0.00	3.00	.34 ± .51	2.02	4.88
Paranoid Ideation	0.00	3.25	.40 ± .57	1.70	2.57
Psychoticism	0.00	3.50	.50 ± .65	1.68	2.70

### 3.3 구조모형 분석

#### 3.3.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424개였다. 포함된 잠재요인의 수는 6개로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다. 각 요인간의 인과관계 형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 는 614.90( $p=.000$ ),  $\chi^2$  3.5, 적합도 GFI .88, AGFI .84, NFI .92, NNFI .94, CFI .94, RMR .02, RMSEA .08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함을 시사하고 있다<Table 3>.

#### 3.3.2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을 위해 가중최소자승법에

<Table 3> Model fitness Index of hypothetical model

Cincidence Index	$\chi^2(p-v)$	$\chi^2(df)$	GFI	AGFI	NFI	NNFI	CFI	RMR	RMSEA
Optimal Model	$p>.05$	$< 3$	$\geq .9$	$\geq .9$	$\geq .9$	$\geq .9$	$\geq .9$	$\leq .05$	$\leq .05$
Hypothetical Model	614.90 ( $p=.000$ )	3.5	.88	.84	.92	.94	.94	.02	.08

의한 모수추정치와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 $\beta$ ),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t-value를 제시하였다.

외생변수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비표준화계수(B)를 1.00으로 고정 하였을 때,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1.02( $t=14.29$ )로 유의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의 비표준화계수(B)를 1.00으로 고정 하였을 때, 자율-통제는 0.73( $t=24.66$ ), 성취-비성취는 0.80( $t=27.76$ ), 합리-비합리는 0.86( $t=27.39$ )로 유의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친구 지지의 비표준화계수(B)를 1.00으로 고정 하였을 때 교수 지지는 0.97( $t=11.92$ )로 유의 하였다<Table 4>. 내생변수에서 자아존중감은 측정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측정변수의 비표준화계수(B)를 1.00으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에서 적극적 대처의 비표준화계수(B)를 1.00으로 고정 하였을 때, 소극적 대처는 0.73( $t=27.40$ )로 유의하였다. 정신건강은 신체화의 비표준화계수(B)를 1.00으로 고정 하였을 때, 강박증은 1.29( $t=16.96$ ), 대인예민성은 1.20( $t=17.56$ ), 우울은 1.45( $t=16.66$ ), 불안은 1.22( $t=17.39$ ), 적대감은 1.03( $t=16.22$ ), 공포불안은 0.84( $t=14.85$ ), 편집증은 1.05( $t=16.22$ ), 정신증은 1.29( $t=17.47$ )로 유의 하였다<Table 5>.

연구 모형의 추정치와 각각의 표준오차, t값 및 다중상관자승치(SMC)는 <Table 6>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beta=.27, p<.001$ )와 사회적지지( $\beta=.27, p=.002$ )이고, 스트레스( $\beta=-.11, p=.074$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전체 예측 변수들이 자아존중감 관련요인을 설명한 정도는 32%였다.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한 경로는 스트레스( $\beta=.25, p=.001$ )와 사회적 지지( $\beta=.72, p<.001$ )이며, 부모의 양육태도( $\beta=-.03, p=.724$ )와 자아존중감( $\beta=-.07, p=.249$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전체 예측변수들이 스트레스 대처 관련요인을 설명한 정도는 33%였다.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스트레스( $\beta=.55, p<.001$ )와 자아존중감( $\beta=-.18, p<.001$ ), 스트레스 대처( $\beta=.12, p=.028$ )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beta=.02, p=.693$ )와

사회적 지지( $\beta=-.14, p=.276$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전체 예측변수들이 정신건강 관련요인을 설명한 정도는 48%였다.

<Table 4> Estimates of the exogenous variables and t=value

Exogenous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beta$	S.E	t(p)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tress	1.00	.82		
	Challenges facing stress	1.02	.81	0.07	14.29 (<.001)
Rearing attitude of parents	love-hostility	1.00	.94		
	autonomy-control	0.73	.82	0.03	24.66 (<.001)
	achievement-nonachievement	0.80	.86	0.03	27.76 (<.001)
	rational-irrational	0.86	.86	0.03	27.39 (<.001)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1.00	.77		
	Prof. support	0.97	.68	0.08	11.92 (<.001)

<Table 5> Estimates of the Endogenous variables and t=value

Endogenous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beta$	S.E	t(p)
Self-Esteem	Self-Esteem	1.00			
Stress Coping	active coping	1.00	.99		
	passive coping	0.73	.81	0.03	27.40 (<.001)
Mental Health	Somatization	1.00	.69		
	Obsessive Compulsive	1.29	.88	0.08	16.96 (<.001)
	Interpersonal Sensitivity	1.20	.91	0.07	17.56 (<.001)
	Depression	1.45	.86	0.09	16.66 (<.001)
	Anxiety	1.22	.90	0.07	17.39 (<.001)
	Hostility	1.03	.84	0.06	16.22 (<.001)
	Phobic Anxiety	0.84	.76	0.06	14.85 (<.001)
	Paranoid Ideation	1.05	.84	0.06	16.22 (<.001)
	Psychoticism	1.29	.91	0.07	17.47 (<.001)

<Table 6> Path Estimate of the Hypothetical model (n=424)

Endogenous variable	predictor variable	B	$\beta$	S.E	t(p)	SMC
Self-Esteem	Stress	-0.21	-.11	0.12	-1.79 (.074)	.32
	Rearing attitude of parents	0.19	.27	0.05	4.21 (<.001)***	
	Social Support	0.34	.27	0.11	3.16 (.002)**	
Stress Coping	Stress	0.49	.25	0.15	3.34 (.001)**	.33
	Rearing attitude of parents	-0.02	-.03	0.06	-0.36 (.724)	
	Social Support	0.97	.72	0.16	6.01 (<.001)***	
	Self-Esteem	-0.07	-.07	0.06	-1.15 (.249)	
Mental Health	Stress	0.98	.55	0.13	7.41 (<.001)***	.48
	Rearing attitude of parents	0.02	.02	0.04	0.39 (.693)	
	Social Support	-0.14	-.11	0.13	-1.09 (.276)	
	Self-Esteem	-0.17	-.18	0.05	-3.56 (<.001)***	
	Stress Coping	0.12	.12	0.05	2.20 (.028)*	

3.1.2 변수의 효과분석

인과모형에서는 총 효과와 더불어 각 경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다른 효과나 변수간의 숨겨진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예측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7>.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양육태도( $\beta=.27, p<.001$ ), 사회적지지( $\beta=.27, p=.002$ )에서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beta=-.11, p=.074$ )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대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스트레스( $\beta=.25, p=.001$ ), 사회적 지지( $\beta=.72, p<.001$ )가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총효과는 스트레스( $\beta=.26, p=.004$ ), 사회적 지지( $\beta=.70, p=.004$ )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beta=-.03, p=.724$ )와 자아존중감( $\beta=-.07, p=.249$ )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스트레스( $\beta=.55, p<.001$ )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나타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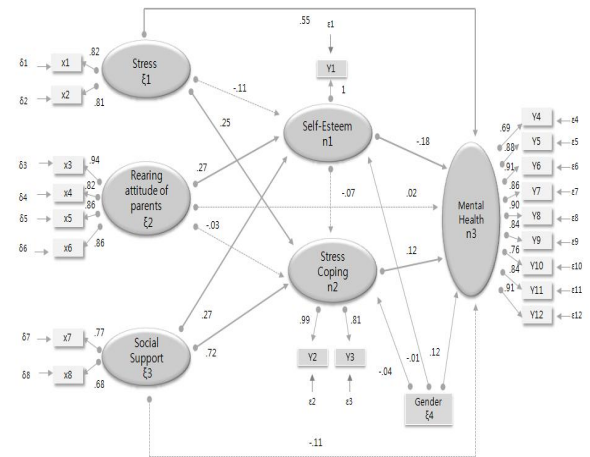
며, 부모의 양육태도( $\beta=-.05$ ,  $p=.011$ )는 간접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은 직접효과( $\beta=-.18$ ,  $p<.001$ )와 총효과( $\beta=-.19$ ,  $p<.004$ )가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스트레스 대처는 직접효과( $\beta=.12$ ,  $p=.028$ )와 총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beta=-.11$ ,  $p=.276$ )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7> Effect of Study Variable on Hypothetical model (n=424)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elf-Esteem	Stress	-.11 (.074)		-.11 (.074)
	Rearing attitude of parents	.27 (<.001)***		0.27 (<.001)***
	Social Support	.27 (.002)**		0.27 (.002)**
Stress Coping	Stress	.25 (.001)**	.01 (.400)	.26 (.004)**
	Rearing attitude of parents	-.03 (.724)	-.02 (.315)	-.05 (.585)
	Social Support	.72 (<.001)***	-.02 (.316)	.70 (.004)**
	Self-Esteem	-.07 (.249)		-.07 (.249)
Mental Health	Stress	.55 (<.001)***	.05 (.008)**	.60 (.004)**
	Rearing attitude of parents	.02 (.693)	-.05 (.011)*	-.03 (.652)
	Social Support	-.11 (.276)	.04 (.463)	-.07 (.434)
	Self-Esteem	-.18 (<.001)***	-.01 (.331)	-.19 (.004)**
	Stress Coping	.12 (.028)*		.12 (.028)*

### 3.1.3 성별(여성=1)을 통제 한 후 연구모형의 효과 분석

연구모형에서 성별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의 평균의 차이가 남자 M=.49, 여자 M=.69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연구모형의 효과 분석에서 스트레스는  $\beta=.57$ ,  $p<.001$ 에서  $\beta=.55$ ,  $p<.001$ 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beta=.03$ ,  $p=.682$ 에서  $\beta=.02$ ,  $p=.693$ 으로, 사회적 지지는  $\beta=-.10$ ,  $p=.334$ 에서  $\beta=-.11$ ,  $p=.276$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ig. 2].



[Fig. 2] Path diagram for Hypothetical model

## 4. 논의

본 연구의 모형은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를 외생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을 내생 요인으로 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구축된 연구 모형은 검정 결과 절대 적합지수인 RMSEA는 .08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경로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직접적인 영향을, 부모의 양육태도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20,21,22,23]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Cheon [24]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정신건강 하위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이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한 미래에서 성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부담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성공에 대한 압박감 등,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좌절과 슬픔을 느끼게 되고,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강점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으며,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Kim [6]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와 우울이 낮으며 [30], Park [25]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이 낮아지며, Kim [27] 연구에서는 고립감, 위축 행동, 우울, 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고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 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요인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eo 등의 [21] 연구결과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 할수록 정신건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스트레스 대처를 적게 할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6], Kang [4]의 연구에서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 할수록 신체화, 강박증, 공포증, 우울, 불안이 낮고, 적극적, 소극적 대처방식을 취할 경우 편집증, 적대감, 정신증, 대인예민증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Moon 등의 [20] 연구 결과에서도 신체화, 강박증, 우울, 적대감, 정신증에서 스트레스 대처점수가 높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떨어질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사고와 행동양식이 취약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비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는 Jee 등의 [22]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을 예견하는 변수임을 고려 할 때, 대학생의 다양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해결할 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형성되는 것으로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살생각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28].

Kang [4]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정신건강의 하위변수인 신체화, 강박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긍정적 양육태도인 합리적, 자율적 양육 태도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공포불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은 자녀들이 인정받고 수용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모형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계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를 포함하는 모형으로 적합도 검증을 통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모형으로 구축된 대학생의 정신건강 모형은 대학생의 개인체계와 환경과의 지속적이 상호작용으로 개인체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변수를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예측하고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포괄적인 모형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건강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 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검정된 변수들은 간호중재를 통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중재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자아존중감 증진,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학교현장 및 정신보건 실무에 활용하는 중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를 전체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개입전략을 세우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생태체계 이론의 다섯 가지 체계 중 개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시체계 요인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성인기로 접어드는 대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체계인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를 포함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셋째, 연구 대상자 선정 시 비례층화 확률 표집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였으나 대상자 전체가 아니며 사회계층이나 지역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대상자의 지각 정도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의 타당성을 위협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인에 대한 통제와 효과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구축된 모형을 보강하는 반복 연구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학년, 전공, 성별 등 구체화된 모형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생태체계 변인 가운데 개인체계 변인과 미시체계 변인만을 고려하여 연구된 결과로 대학생을 둘러싼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대학생의 정신건강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미시체계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간호중재를 제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http://www.who.int/features/qa/62/en/index.html>
- [2] Statistics Korea, 2014년 사회조사 결과, 2014.
- [3] Kim, I. H.,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in a Community." *J Agri Med & Community Health*, Vol. 34, No 2, pp. 234-243, 2009.
- [4] Kang, J. H.,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Self-esteem, Decision-making Styles, Stress-coping Strategies, and Mental Health by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2005.
- [5] Han, K. S.,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3, pp. 585-592, 2005.
- [6] Kim, B. S.,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 Focused on the Depression and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2009.
- [7] Yang, S. k., Ha, Y. S., Lee, J. S., Kwon, H. J., Lee, M. H., et al.,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Seoul; Hyunmunsa., 2013.
- [8]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by nature design."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79.
- [9] Kim, G. L., Kim, J. H., & Won, H. T., "SCL-90-L." Junggang publisher, 1984.
- [10] Lee, H. K., "Psychological Matura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Yonsei University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pp. 145-164, 1986.
- [11] Jeon, J. G., Kim, K. Y. & Lee, J. S.,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3, No. 1, 2000.
- [12] Oh, S. S. & Lee, J. S.,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 child for parenting style of the parent." *Korea Research Institute Behavioral Sciences, Research Notes*, Vol. 11, No. 1, 1982.
- [13] Lim, S. h,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okmyung Women's, 1987.
- [14] Nolten, P. W.,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4.
- [15] Kim, J. H.,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2011.
- [16]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7] Jeon, B. 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Vol. 11, No 1, pp. 107-130, 1974.
- [18] Lazarus, R. & Folkman, S. (ed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19] Kim, J. H.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1987.
- [20] Moon, W. H., Chung, K. S., & Kim, M. J., "Mental Health, Stress, Coping Ability,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olleg Students."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9, No 3, pp. 103-114, 2012.
- [21] Seo, M., Choi, B. Y. & Jo, H. I., "The Effect of Life Stress,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on Mental Health."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 2, pp. 271-288, 2006.
- [22] Jee, Y. J. Lee, Y. B., Lee, A. R., & Jeon, J. W.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8, pp. 3866-3875, 2013.
- [23] Jeon, H. J., "Multiple Mediating Effects between Attachment and Life Quality among Freshmen in University: Stress, Affect,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2, No 2, pp. 257-266, 2013.
- [24] Cheon, S. H., "Relationships among Daily Hassles, Social Support, Entrapment and Mental Health Status by Gender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223-235, 2012.
- [25] Park, S. W., "The Effects of Campus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and Maladjustment Perfectionis on Suicide Ideation among Colleagu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Gyeongnam, 2010.
- [27] Kim, S. O.,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Seoul, (2009)
- [28] Yun, S. J.,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 the College Student Stress and Suicide Ide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 Dankook University, Seoul, 2014.
- [29] Yang, K. M.,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113-123, 2014.
- [30] Lee, J. W. Kang, K. H.,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69-74, 2014.

전 미 경(Jeon Mi Kyung)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1년 4월 ~ 현재 : 문경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정신간호, 정신간호
- E-Mail : jeonmk4311@nate.com

오 경 옥(Oh, Kyong Ok)



- 1990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박사
- 1974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적지지, 지역사회정신간호
- E-Mail : ohkok@cnu.ac.kr